

2020년 6월 30일

에히메현 지사의 부탁 말씀 (수도권으로 외출 주의)

에히메현에서는 6월 19일부터 「감염 축소기」를 이행했습니다. 현 내에서는 5월 27일에 양성 확인 이후, 한 달 이상 동안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의 차분한 행동과 각 분야의 전문가, 의료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종사자 등 여러분의 협력 덕분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보도 등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감염자의 확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도에서는 연일 50명이 넘는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발표에 따르면 감염 확인 자체는 적극적인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고, 경증자가 많아 의료제공 체제에 지장은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도민에 대한 자숙요청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보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본 현에서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옴에 따라, 현 내 감염이 확대되고 고령자를 중심으로 중증화되는 것을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을 넘나드는 이동의 자숙은 해제되었지만,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대해서 현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으로의 여행과 출장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을 방문하고 에히메에 돌아온 후에는 2주간 정도 건강 관리에 유의해주시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자택에서 생활하며, 외출 시의 마스크 착용과 혼잡한 장소는 피하는 등, 혹시 자신이 감염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감염시키지 않도록 주변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종 코로나 대책의 기본이 되는

「감염 회피 행동」

첫째, 감염되지 않도록 자기방어!

둘째, 감염시키지 않도록 주변에 대한 배려!

셋째, 3밀 회피의 습관화!

이 세 가지가 모든 곳에서 실천되는 것이 감염 예방과 사회 경제활동의 양립으로 연결됩니다.

앞으로도 현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정보 공유에 노력하겠사오니, 현민 여러분께서는 신종 코로나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 올바른 행동에 유의해주시어 「사랑과 웃음 가득한 에히메」의 실현을 위해 앞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갑시다.